

세상의 손발 되어 ②



발심하여 처음 찾아간 곳이 바포의 석불사였다.
 처음으로 법회에 참석해 법사스님이 설명해 주시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접한 나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를 감동이 일었다. 부처님의 정법과 인연의 길이었다.
 금강경과의 그 짧은 만남으로 나는 경전공부에의 소망을 품게 됐다.
 얼마후 개도종 이사를 가면서 긴 밤 황갈에 풍도사 서을 포교단 구룡사와 묘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가전물만 있던 구룡사에 부처님 금란가사 친견하러 갔다가 1기 불교교리 강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참여하게 된 것이 오늘 불자로서 행법을 수행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1백일 동안 계속된 금란가사 친견법회에서 매일 108 참회

도 정진에 몰두했다. 만발이 모셔지고 불사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기까지 사 내 일은 산더미 같았다.
 하지만 전법도량을 세우는 큰 일이라는 자부심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갔다. 교양대학 4기가 배출되었을 때 비로소 본건물이 완성되었다. 그때만 해도 한국불교의 포교 현주소는 매우 열악하였고 그래서 도심포교단의 완성은 더욱 뜻깊은 일이었다.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실천하는 생활 불교를 목표로 하고 손이 필요한 곳이면 손이 되어 주고 괴로움을 호소하면 그 괴로움을 풀어주게 되었던 것이다.
 생활자체가 포교며 실천덕목이 자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생활불교의 초석이었다. 나는 어떤 일로 전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중생

자식 키우며 제일 어려운 일이 대학 입시인을 앉았는데 혼기를 놓친 자식들 인한 맺어주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안타까워하는 어머니들을 보면 마음대로 꼭지와 이부게 하고 싶으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떻게 맞선을 주신해 주고나면 너무나 쉽게 헤어지곤 하는 것이었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신해 주는 쪽도 힘이 빠져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좀더 좋은 방법과 많은 쪽이 이루어질 일이 없을까 생각해낸 것이 그룹미팅 계획이었다. 서취심사를 거쳐 남녀 각각 30명씩 60명을 초청하여 레크리에이션 법사스님과 관공 수록원 자유회를 계획하였다. 어떻게 하든지 비슷한 환경과 교육수준을 자연스럽게 맞추어 꼭지어 주려고 힘썼고 맞선 보는 이벤트를 적게 하여 맞선이라도 이루어 지도록 노력했던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성을 쏟은 상담실 및 행사였다. 그런데 미팅시간이 더 되었는에도 당사자들이 도착하지 않는 것이었다. 스님과 나는 너무나

부처님 금란가사 친견하러 갔다가 초발심 인연 가전물 자리에 '전법도량 세우자' 일손 모아

기도 정진하며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 갔다. 참회기도는 이제까지의 나로부터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했고 조금씩 나를 변화시켰다. 그것은 바로 초발심이었다. 이렇듯 열심으로 공부하여 1기 불교교양대학 수료했다. 그리고 계속된 1백일기도의 권력으로 오늘날의 구룡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불사종인 본건물과 가법단 법회가 2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조직은 없지만 그러나 할 일은 한없이 많은 시기였다. 절알도 함께 들고 어려운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면서 봉사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불교교양대학을 수료한 보살들을 기별로 묶기 시작하면서 제1기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다.
 법회때는 공양간 봉사할 하며 또 기

을 이용해 하고 수순하는 일이면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무엇이든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룡사에 결혼상담실이 생기고 인연 지어주는 일을 시작하였다.
 당황했고 동위에서는 식은 땀이 주르르 흘렸다. 약속시간이 30분이나 지나서야 멀리서 한 두 쌍이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나 반갑고 고맙는지 그때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다른 이들도 이미 왜서는 멀리서 이쪽 상황을 살피며 섰듯 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밖으로 나가서 한사람씩 안내하여 모이게 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40명 정도가 모였으니 성공인 셈이었다.
 동아래성 (구룡사 전리의 전회 회장)



북녘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조국의 평화통일과 북녘 동포에도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하기 위한 호국광명동탑 청문회법회가 지난 14일 저녁 서부 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예기봉에서 열렸다.
 해병청룡부대가 주관하고 대한불교 조계종과 김포·강화 사암연합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육위원장 원산스님 조계사 주지 현근스님 석왕사 주지 영담스님 강남석 군속단장을 비롯해 지역 행정 관·서장 해병장병동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부처님 오신날까지 평화의 청문회법회가 지난 14일 저녁 서부 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예기봉에서 열렸다.
 해병청룡부대가 주관하고 대한불교 조계종과 김포·강화 사암연합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육위원장 원산스님 조계사 주지 현근스님 석왕사 주지 영담스님 강남석 군속단장을 비롯해 지역 행정 관·서장 해병장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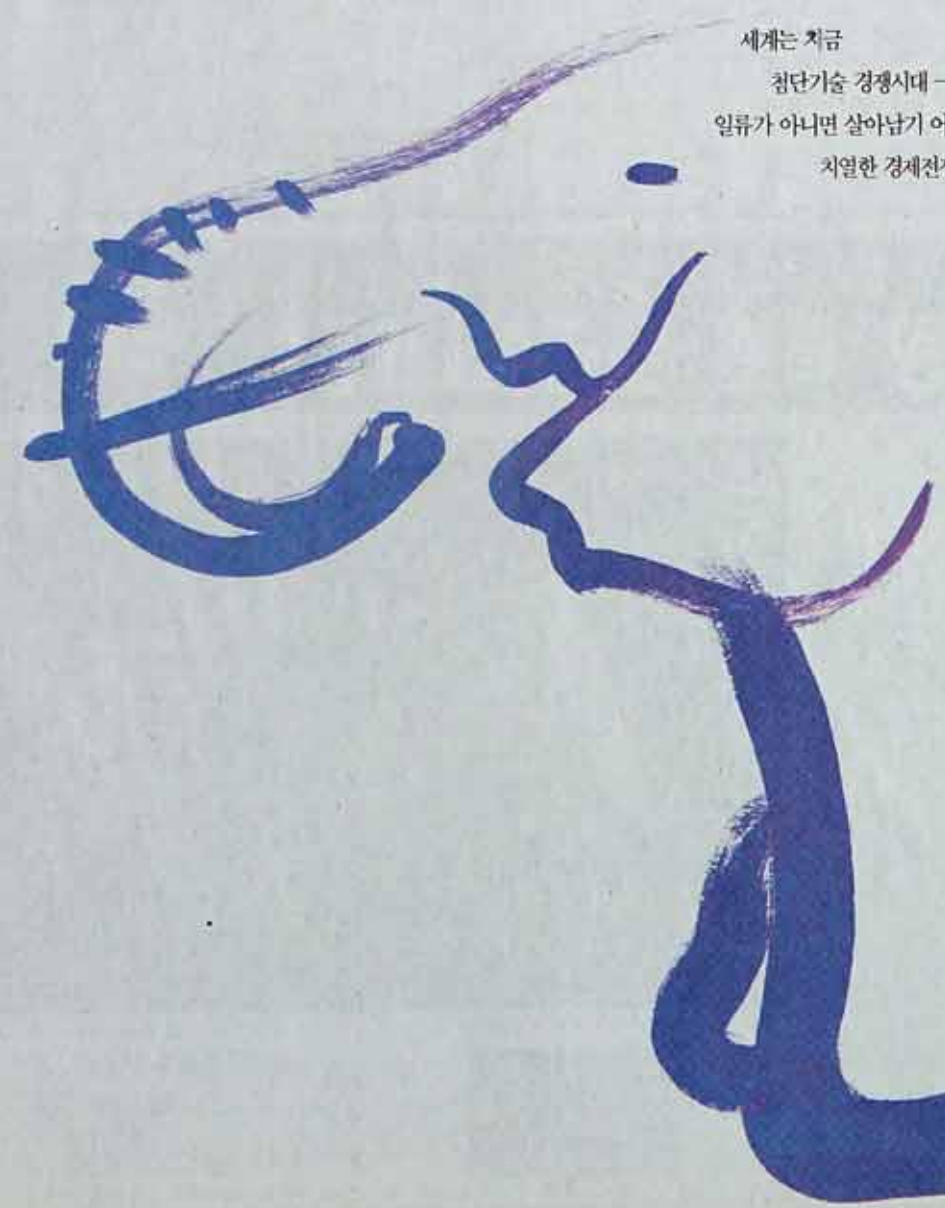


일본속 고려불화 '화엄정도 변상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양식의 고려불화가 일본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화엄사상과 정토신앙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제작된 이 고려불화는 중앙일보의 「해외 문화유산 찾아서」 기획취재팀과 동국대 흥륜식교수에 의해 발견된 13세기 중반의 작품이다. (관련기사 13면)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삼성전관을 아시면 세계 1위 기업을 알게 됩니다.



세계는 지금
 첨단기술 경쟁시대 —
 일류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치열한 경제전쟁속에서 선두에 우뚝 선

세계 일류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관입니다.
 컬러 브라운관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로 이제는
 세계 유수기업들을 제치고 세계시장 점유율 14%를 차지,
 세계 1위에 올라선 삼성전관!



어려운 기술환경속에서도 기술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삼성전관의 기술개발에 대한 도전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최초 바이오브라운관과 와이드 TV용 초평면 브라운관 개발, 차세대 영상기기의 주역이 될 HD TV브라운관 개발 등으로 세계 일류기업들과 영상기술을 겨루고 있는 삼성전관— 말레이시아, 독일 등 해외공장의 성공적 운영과 멕시코공장 진출로 세계화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술로 이룩한 컬러브라운관 세계 1위 기업, 세계속의 초일류기업 — 바로 삼성전관 다.

